



2025.6.12(목) 제25-45호

KOTRA 워싱턴 D.C. 무역관

KOTRA 워싱턴 D.C.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(화/목) 배포합니다.



▣ 주요 내용

⌚ 워싱턴 D.C. 포커스

- (경제전망) 세계은행(World Bank), 2025년 세계 경제 성장을 하향 조정 1
- 고율 관세, 정책 불확실성, 구조적 리스크 등으로 '25년 전망치를 기존 2.7%에서 2.3%로 0.4%p 하향 조정

₩ 경제통상 동향

- (통상) 미·중, 런던 회담 통해 희토류·수출 통제 포함한 무역 프레임워크 도출 3
- (관세) 연방항소법원, IEEPA 관세 항소심 판결 전까지 관세 효력 유지 명령 4
- (관세) 트럼프 대통령, 주요 교역 상대국에 일방적인 관세 통보 예고 5

⚖️ 의회법안 동향

- 특이 동향 없음 5

💬 이시각 헤드라인

-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6
-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7

▣ 워싱턴 D.C. 주요일정

6.12(목)	◆ 5월 생산자 가격 지수(Producer price index)
6.13(금)	◆ 5월 소비자 체감도(예비) (Consumer sentiment (prelim))
6.17(화)	◆ 5월 수입 가격 지수(Import price index)
6.18(수)	◆ FOMC 금리 결정(FOMC interest-rate decision)

⌚ 워싱턴 포커스

(경제전망) 세계은행(World Bank), 2025년 세계 경제 성장을 하향 조정

1.

□ 세계은행, 「25년 세계경제전망(Global Economic Prospects)」 보고서 발표

- 세계은행은 '25년 세계 경제전망을 발표하고, 올해 세계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기준 2.7%에서 2.3%로 0.4%p 하향 조정 (6.10)

-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불황기 기준 가장 낮은 성장률로, 고율 관세, 정책 불확실성, 지정학 갈등 등 복합적 리스크에 따른 경기 둔화 반영
- 최근 세계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▲글로벌 통상갈등 확대 ▲정책 불확실성 증대 ▲민간 투자심리 위축 ▲기후 리스크 등 지목
-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100년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글로벌 교역·투자 회복세 지연 및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고조 평가

※ (참고) 주요 국제기구 '25년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 비교(25.6.12 기준)

- World Bank 성장률 전망(25.6.10) : ('25년) 2.3%
- OECD 성장률 전망(25.6.3) : ('25년) 2.9%
- IMF 성장률 전망(25.4.22) : ('25년) 2.8%

2.

□ 지역별 성장률 전망

- (선진국) 고금리, 소비·투자 심리 위축, 교역 둔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지속
 - 미국은 ▲정책 불확실성 ▲민간 소비·투자 위축 등 영향으로 성장률을 1.4%로 하향 조정(기준 대비 -0.9%p), 백악관은 고용 및 투자 개선을 근거로 반론 제기
 - 유로지역은 ▲내수 회복 지연 ▲수출 둔화 ▲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'25년 성장률 0.7% 전망, 민간투자 부진이 회복 제약
 - 일본은 내수 및 수출 동반 정체와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수요 제약으로 '25년 성장률 0.7%로 하향 조정

- (신흥국·개도국) 세계 수요 둔화, 투자유입 감소, 기후 리스크 등으로 회복세 제약

- 중국은 재정 및 통화 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4.5%로 성장 유지 전망이나, 희토류 수출통제 및 기술 규제 등 정책 조치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존재
- 멕시코는 미국 통상정책의 직접적 영향 외에도 대외 투자심리 악화 및 교역 둔화로 기존 대비 1.3%p 하향된 0.2%로 조정
- 기타 개도국은 ▲글로벌 투자 감소 ▲기후·분쟁 리스크 ▲FDI 유입 위축 등 구조적 제약으로 '25년 성장률 3.8%로 하향 조정

□ 주요 리스크 요인

- 향후 세계 경제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대 구조적 리스크 지목

- (통상갈등 확대)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100년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, 글로벌 무역심리·민간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교역 회복 및 공급망 재편 저해
- (정책 불확실성 심화) 주요국 간 무역 협상 지연, 금융·통상 조치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예측 가능성 저하, 투자 위축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유발
- (지정학적 리스크 확대) 우크라이나·중동 등 분쟁 지속과 신흥 갈등 지역 확산에 따른 에너지·원자재 공급 경로의 불안정성 확대
- (기후 리스크 및 공급망 충격) 이상기후 빈도 증가가 농업·에너지 부문에 직접적 충격 야기, 식량·에너지 가격 변동성 심화 및 공급망 불안 고착화 가능성 제기

- 무역정책 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

- (하방 시나리오) 미국의 관세율 10%p 인상 및 교역 상대국 보복조치 시행 시, 교역 위축과 투자심리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'25년 -0.5%p, '26년 -0.4%p의 글로벌 성장률 하락이 전망되며, 장기 저성장 진입 가능성 제기
- (상방 시나리오) 미국의 관세 인하 및 통상 불확실성 완화 시, 투자심리 회복과 교역 정상화에 따라 '25년 +0.1%p, '26년 +0.3%p의 글로벌 성장률 개선 전망

▪ 작성자	워싱턴 D.C.무역관 정연호
▪ 자료원	세계은행(6.10), 블룸버그(6.10), 로이터(6.10)



(통상) 미·중, 런던 회담 통해 희토류·수출 통제 포함한 무역 프레임워크 도출

- (개요) 미·중 양국은 런던 고위급 회담(6.9~10)을 통해 희토류 공급 재개 및 일부 수출 통제 완화 등을 포함한 무역 프레임워크 잠정 합의
 - 이번 회담은 5월 제네바에서 체결된 90일간 관세 유예 합의의 연장선으로, 이후 양측은 합의 이행 미흡 문제로 갈등 지속
 - 트럼프는 “협상 타결”을 선언했으나, 시진핑 주석과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 있음.
- (상세) 이번 회담은 미-중 공급망 및 수출통제 조치 협상에 집중
 - 미국은 對중국 관세율 △펜타닐·이민 관련 긴급조치(20%), △보편관세(10%), △301조 관세(25% 수준)을 합산해 총 55% 수준의 관세율 유지
 - 또한, 중국 유학생 비자 제한을 철회하고, 에탄, 항공기 부품, 일부 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통제를 완화할 예정(단, 고성능 AI 칩 등 핵심기술은 제외)
 - 중국은 희토류 및 자석류 수출을 미국 기업에 즉시 재개하되, 수출 허가는 6개월 유효 조건으로 발급 → 향후 협상 지렛대로 사용 가능
 - 중국은 이번 합의를 ‘원칙적 합의’로 규정, 세부 이행 조건은 향후 논의 필요성 강조
 - 미 국방부 및 안보 전문가들은 “이번 합의는 중국이 지난 공급망 통제력을 여전히 인정한 것”이라며 우려 제기

■ 작성자 워싱턴 D.C. 무역관 Olivia Kim

■ 자료원 인사이트([6.11](#)), NYT([6.11](#)), WSJ([6.11](#))

(관세) 연방항소법원, IEEPA 관세 항소심 판결 전까지 관세 효력 유지 명령

- (배경) 트럼프 행정부, 국제무역법원(CT)의 IEEPA 관세 철회 판결에 항소(5.29)
 - 미 국제무역법원 3명의 판사 패널,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를 위해 발동한 국제 경제비상수권법(IEEPA)이 대통령의 월권이라고 판결, 10일 내 관세 철회 명령(5.28)
 - 법무부는 CIT의 관세부과 금지 명령이 국가 경제와 안보, 외교 정책 결정 및 관세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, 즉각 항소하고 판결 유예 요청(5.29)
- (경과) 연방항소법원, IEEPA 관세 항소심 진행 기간 동안 관세 효력 유지 명령(6.10)
 - 연방항소법원은 ▶ CIT의 관세 철회 판결 효력 일시 중단 결정(5.30) → ▶ 국제경제 비상수권법(IEEPA)에 근거한 관세부과 적법성에 대한 항소심 최종 판결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관세(중국, 멕시코, 캐나다, 보편관세, 상호관세) 효력 지속 명령(6.10)
- (추후 일정) 항소법원 판사 전원합의체로 구두 변론 진행 및 심리 예정(7.31)
 - 연방항소법원은 동 소송을 "예외적으로 중요(Exceptional Importance)한 문제로 간주, 전체 판사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(en banc)*로 구두 변론·심의 진행 예정
 - * en banc: 사건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거나, 기존 판례와의 일관성, 또는 법원 내에서 해석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, 전원합의체(en banc) 심리로 결정
 - 현지에서는 항소심 판결 결과가 미국 내외 경제, 입법 및 행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며, 법원의 형평성과 신증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

▪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문현주
▪ 자료원	인사이트(6.10), 폴리티코(6.10)

(관세) 트럼프 대통령, 주요 교역 상대국에 일방적인 관세 통보 예고

- 트럼프, 1~2주 내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는 서한 발송 시사(6.11)

- 7월 9일 상호관세 재부과 시한을 앞두고, 교역 상대국의 입장과 관계없이 미국 측 결정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언급

- * [트럼프 대통령 발언] “We’re going to be sending letters out in about a week and a half, two weeks, to countries, telling them what the deal is,”

- 협상 중인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시점 연기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, “굳이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다”라고 덧붙여 연기 가능성을 낮게 평가함

-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, 관세 재개 일정 유예 가능성 시사

- 6월 11일 하원 세입위 청문회에서 “현재 18개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며, 성실히 협상에 임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”라고 발언

■ 작성자	워싱턴DC 무역관 이정민
-------	---------------

■ 자료원	Bloomberg(6.12), InsideTrade(6.11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▣ 의회법안 동향

* 특이 동향 없음

언론사 주요 보도내역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The Wall Street Journal	<p>Supply Chains Become New Battleground in the Global Trade War (공급망, 세계무역전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하다)</p> <p>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각국은 첨단 반도체/히토류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협상카드로 적극 활용. 기업들은 공급망 다각화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있음</p>
The Washington Post	<p>Military parade, big protests will fuel clashing visions of America (열병식과 반대 시위, 분열하는 미국의 초상)</p> <p>토요일 워싱턴 D.C. 열병식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대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. 시민단체들은 권위주의라고 비판하는 가운데, 일부는 미군의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주장</p>
The New York Times	<p>Trump Blocks California E.V. Rules in Latest Move to Rein In the State (트럼프, 캘리포니아 전기차 규정 차단... 캘리포니아 통제 시도 격화)</p> <p>트럼프 대통령, 캘리포니아의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 계획을 차단하는 결의안 서명. 캘리포니아는 연방법원에의 제소를 준비하는 한편, 뉴섬 주지사는 다른 EV 장력책을 고안하라 지시</p>
CNN	<p>Nvidia will stop including China in its forecasts amid US chip export controls (젠슨황 “시장 전망치에서 중국 시장 제외할 것”)</p> <p>엔비디아 젠슨황 CEO는 앞으로 매출 및 이익 전망치 발표시 중국 시장을 제외할 것이라 밝혀. 황은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완화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나 수출통제는 실패했다고 밝혀</p>
USA Today	<p>Trump vows changes to immigration crackdown to protect migrant farmers, hotel workers (트럼프, 이민자 농부 및 호텔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단속절차 바꿀 것)</p> <p>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ICE의 단속이 베테랑 농업 및 레져업에 인력난을 초래했다며 이들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 밝혀.</p>

* 미국 동부 시간 6월 12일 15시 기준

워싱턴 D.C. 무역관 공지사항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경제통상리포트 (과거 리포트 : [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5-17	미 하원 세제 법안에 포함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제도 수정 조항	2025.06월
US25-16	트럼프 행정부 IEEPA 기반 관세 조치에 대한 법원 판결 동향	2025.05월
US25-15	G7 재무장관 회의 주요 논의내용 및 현지 동향	2025.05월
US25-14	약가 인하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5.05월
US25-13	미 정기선 해운산업의 경제적 영향 및 항만료 추정 비용 분석 주요 내용	2025.05월
US25-12	2026 회계연도 트럼프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5.05월
US25-11	2025년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5.04월
US25-10	미 USTR의 중국 조선업 무역법 301조 권고 조치 주요 내용 및 시사점	2025.04월
US25-09	202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(NTE Report) 주요 내용	2025.04월
US25-08	'미국 우선 투자 정책' 대통령 각서 발표 및 주요 내용	2025.04월
US25-07	미일 정상회담, 안보 및 경제 협력을 통해 동맹 강화	2025.02월
US25-06	미 캐나다·멕시코·중국 관세부과 조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5.02월
US25-05	미 하원에 발의된 '미국 상호무역법안' 상세 내용 및 시사점	2025.02월
US25-04	미 하원, 공정 무역 회복법(Restoring Trade Fairness Act) 발의	2025.02월
US25-03	'디지털 금융 기술에서의 미 리더십 강화'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5.02월
US25-02	2025년 글로벌 경제·통상 정책 전환과 주요 일정	2025.02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(과거 인터뷰 : [유튜브 KOTRA TV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사-22 (2025.5.13.)	 미국 통상 전문가가 예측한 트럼프 2기 글로벌 경제	
코인사-21 (2025.2.8.)	 워싱턴 특파원이 알려주는 미국 경제 통상 핵심 키워드	

문의	이메일	전화
	seogil.chang@kotra.or.kr	+1) 202-857-7919
	jwshim@kotra.or.kr	